한솔EME 대표이사 정형근 부사장

한솔그룹, 대표이사 대부분 유임 결정 … <세계 최고가치 창출> 실현

한솔그룹이 12월1일 정형근 한솔EME 부사장을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계열사 신규 임원 3명을 승진시키는 등 2005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한솔그룹은 2004년 원자재 파동,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전 계열사가 목표 이상의 경영실적을 달성할 것이 확실시되는 등 뛰어난 경영실적을 보임에 따라 대부분 대표이사를 유임시켰다고 발표했다.

한솔그룹은 앞으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2005년까지 <세계 최고의 가치창출기업>을 실현한다는 중기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부합한 성과와 능력위주 인사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정형근 한솔EME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중공업을 거쳐 삼성엔지니어링 해외영업본부장과 고객지원실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 2월 한솔EME 부사장으로 영입돼 환경플랜트 사업을 총괄해 왔다.

<화학저널 2004/12/03>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